

“괴롭힘 못 살겠다” 외쳐도…기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

광주·전남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간 1만 4000건…매년 급증 추세
매달 신고 200여건…정부, 지원센터 예산 전면 삭감에 권익 보호 역행

매월 200명 넘는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등을 견디다 못해 노동청 등에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데도 관련 예산을 20년 만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보호·적응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광주·전남 지역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7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달까지 이미 1458건이 접수된 상태로, 1월 83건, 2월 147건, 3월 174건, 4월 267건, 5월 275건, 6월 242건, 7월 270건 등 매월 200건이 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도 총 1만4000여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21년 2921건, 2022년 2727건이었다가 2023년 3615건, 2024년 4217건 등으로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은 “해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업무 난이도보다 한국인들과 소통하는 것, 안전한 일장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박에서 대형 컨테이너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 에드워드 제임스(23·키리바시)씨는 “나주 벽돌공장 영상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터에서 지게

차로 직장 동료들 괴롭히다니 가슴이 아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게 당연한데, 고용주들은 매번 공권력 개입 없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으로 18살 때 들어와 10년째 창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지 베스나(28·캄보디아)씨는 “큰 사업장이 아니라 시골 농가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더 힘들다고 들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곳에 한두 명밖에 없으면 더 힘든 것 같다”며 “같은 동료라는 생각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말이 잘 안 통해도 이해하려는 고용주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주 벽돌공장 사건이 “남일 같지 않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들도 있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위스나(33·캄보디아)씨는 “이번 사건을 보고 같이 일하던 한국 사람이 매일같이 ‘개XX’, ‘XX놈’ 등 심한 욕을 해

치지 못하고 그만뒀던 기억이 떠올랐다”며 “괴롭힘 등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 다른 일을 찾는 동안 잘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하거나 다른 이들과 어울릴 기회도 없어서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찌어 찌라(28·캄보디아)씨도 “과거 한 동료는 한국 직원이 지시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탓에 엄청 혼이 나서 결국 퇴사한 것을 봤는데, 결국엔 소통이 잘 안 돼서 작은 문제도 더 커지는 것 같다”며 “한국에 적응하기까지 언어 소통 능력도 길러 주고, 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는 이유로 너무 엄격하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와 적응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전국 9개 거점 센터와 35개 소지역 센터 지원 예산을 20년만에 0원으로 전액 삭감했다. 센터 운영에 대한 연도별 예산은 2020년 87억 2400만원에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으면서 지역 내

센터 곳곳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해 고용부 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외국인주민센터를 열었고, 전남도도 자체 사업을 진행해 전남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광주·전남 전역의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충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춘호 광주 민중의집 운영위원(변호사)은 “말이 통하지 않고, 제도도 복잡한 상황에서 부당함을 겪고도 말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고용허가제 구조상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이직이나 산재 신청조차도 자유롭게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사업주는 노동자가 이직을 원하면 수백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이직 자체를 막는 사례도 있다. 노동부나 고용센터 역시 ‘노사 간 합의’라며 방관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수박주스 안 팔아요”

극한 기후 속 수박가격 급등에 광주 영세 카페 업주들 판매 포기

본격적인 여름에 ‘수박’이 제철을 맞았지만, 광주 지역 영세 카페 업주들은 오히려 인기 제품인 ‘수박 주스’를 메뉴판에서 내리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에 이어 폭우가 쏟아지는 등 극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수박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가격이 한 통에 4만원에 육박할 만큼 급등하면서다. 자영업자들은 “수박주스 5000원 판매해도 그 중 3000원이 원가라 팔아서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울며 겨자먹기로 수박 주스 판매를 포기하고 있다.

광주시의 ‘카페 거리’로 유명한 동명동, 양림동부터 주요 상권인 충장로 카페는 곳곳에서 수박주스를 메뉴판에서 내렸다.

남구 양림동에서 지씨디(GCD)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35)씨는 올해 수박 주스 판매를 포기하고 아예 메뉴판에 적어 두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수박 가격이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그보다 1만원이 더 올랐다”며 “수박이 맛있는 유통기한은 이틀이면 끝나버리는 터라 저장해 둘 수도 없다. 수박 주스를 팔려고 하면 품은 많이 드는데 적자를 낼 위험까지 안게 된다”고 말했다.

양림동 ‘암브로시아’ 카페 업주도 지난 주 수박 주스를 메뉴판에서 빼버렸다. 수박이 조금만 커도 3만원을 넘어가는데, 정작 착취하고 보면 몇 잔 만들 수도 없어서 아무리 인기 있는 제품이라도 다시 판매할 생각조차 안 든다는 것이다.

조선대 인근 카페 ‘먼데이홀리데이’ 업주 C

(38)씨도 “7월 초부터 수박주스 판매를 시작했다가 가격이 올라서 몇 주만에 판매를 중단했다”며 “폭우가 온 이후로 수박들이 도통 당도가 오르지 않고 있고, 더구나 날이 너무 더워서 수박이 매장으로 오는 길에 익어버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영세 카페 업주들은 원가가 올라도 판매가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수박 가격이 떨어지거나 바랄 수박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렸다가는 손님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 하고 적자를 감수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동구 금남로 로머스카페 업주는 “2주 전 정도부터 납품가가 오르더니 지금은 4만원대다. 수박을 포함한 생과일주스를 전부 5000원에 팔고 있는데, 마진이 급격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며 “적자가 나더라도 손님들이 좋아하니 수박주스 판매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동구 동명동 카페 ‘아비오’ 업주는 “수박주스가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서 하루에 20잔 이상은 기본으로 나가다 보니 이윤이 안 남아도 메뉴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보다 가격이 더 오르면 어쩔 수 없이 판매를 종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수박 평균 소매가격은 상품 기준 1개당 3만 3337원으로 1년 전 같은 날(2만 7676원)에 비해 20.4% 높았다. 한 달 전인 7월 1일 소매가격(2만 3472원)보다는 42.0% 급등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도서관서 책 보며 피서 무더위가 이어진 4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을 찾은 이용객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신안동 주민들, 침수 피해 법적 대응키로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광주시 북구 신안동 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신안동 주민은 4일 수해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신안동 침수 피해에 대한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피해는 명백한 인재로 발생한 것이라며 광주시와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방전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진 투명홍수 방어벽과 악취 저감을 위한 차단막 등 두 가지 시설이 오히려 빗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마을을 침수시켰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광주시는 지난 2023년까지 신안동 신안교부터 임동 광주천 합류부까지 1.14km 구간에 서방천 개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옹벽을 쌓고 일부 구간엔 1.5m 높이의 투명홍수방어벽을 세웠는데, 주민들은 이 방어벽이 마을로 들어온 빗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고름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신안동 80대 주민이 폭우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주택과 상가 등 70여채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다슬기 잡다가 물에 빠져 화순 지석천서 50대 사망

화순 지석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5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3일 화순경찰 등에 따르면 1일 밤 10시 10분께 화순군 청풍면 지석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50대 여성 A씨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인근 교량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일행 3명과 동행하고 있었으며, 그중 60대 여성 1명도 물에 빠졌다가 구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